

[1 ~ 3]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 작가와 교수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 교수님, 이번 방송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수: 이번 주제는 '철학하는 과학자'입니다. 과학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에게 철학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과학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닐스 보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작가: ㉠ 아, 닐스 보어라면 1년 전에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니 교수님과 프로그램을 함께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쨌든, 보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 줄 겸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면 어떨까요?

교수: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입니다. 보어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작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보어의 삶에 대해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우의 내레이션을 곁들인 영상으로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미소를 띠며) ㉢ 물론 성우가 교수님만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교수: (절절 웃으며) 좋습니다. 그럼 저도 촬영 부담이 줄어서 좋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이 계신데,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구해 드릴까요?

작가: 역시 교수님은 아는 분이 참 많으시네요.

교수: ㉣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작가: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죠. 보어가 왜 철학하는 과학자인가요?

교수: 보어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빛의 이중성이라는 당대 과학계의 수수께끼를 풀어난 사람입니다. 이윤배 반적인 두 가지 성질을 놓고 선택하기에 바빴던 당대 과학자들과 달리 보어는 새로운 인식 방법을 제시하여 수수께끼를 해결했죠.

작가: ㉤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빛의 이중성이 뭔가요?

교수: 빛의 이중성이란 빛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가: 그렇군요.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러면 어떨까요?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이것을 보조 자료로 화면에 내보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설명하기에도 편하실 테고.

교수: 그게 좋겠네요.

작가: 그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윤배반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작가는 공유하는 경험의 진위를 따지며 경쟁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교수는 비언어적 표현을 수반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③ ㉢에서 작가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말로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에서 교수는 겸양적 발화를 통해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다.
- ⑤ ㉤에서 작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 [A]에서 '작가'가 예상한 애니메이션 활용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수의 설명과 함께 활용하면 학생들이 빛의 이중성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 ②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빛의 수수께끼에 대한 설명에 신뢰감을 가질 것이다.
- ③ 교수의 설명 내용을 고도로 압축하여 보여 주므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 ④ 매체 자료의 특성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오락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학생들이 화면을 보며 동시에 설명을 들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기>는 위 대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방송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진행자: 학생들 중에 이윤배반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 그렇겠죠? 다들 동전 던지기 한번쯤 해보셨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위로 던졌다가 손바닥으로 받으며)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진행자: (의아해 했다가 웃으며) 앞면이요.

교수: 혹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행자: (또다시 의아해 했다가 웃으며) 그럴 수는 없죠.

교수: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이윤배반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아하, 그렇군요.

- ① 진행자는 교수의 말을 요약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진행자는 교수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 ③ 교수는 친숙한 경험을 환기하며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④ 교수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을 지적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⑤ 교수는 질문을 통해 진행자가 지닌 통념의 문제점을 진행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4~5]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입니다. 텔레비전 자막은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목이나 배역, 해설, 설명 등을 화면에 비추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자막은 왜 사용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막은 주로 장면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화면 속 인물의 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장면에 어울리는 글로 재미나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자막은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활용되는데, 문제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막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막은 오락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을 보여준 후) 자막이 몇 번 사용되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다가 한 청중의 대답을 듣고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 여덟 번이라고요? 지금 자막에 관해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 너 혹시 자막에 집중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만 본 건 아니냐? (청중들 웃는다.) 자막은 모두 열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막들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찾으셨나요? 하나씩 확인해 보죠. 이 자막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좋아용’입니다. 이 자막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자막에서는 ‘차칸 남자’에서 ‘차칸’, 이 자막에서는 ‘내가 먹의리’에서 ‘먹의리’가 맞춤법에 맞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사용된 열 개의 자막 중 무려 세 개의 자막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한 프로그램 당 평균 15 번이나 이런 자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텔레비전 자막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락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인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는 맞춤법이 잘못된 텔레비전 자막을 사용한 프로그램 제작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바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방송 모니터 요원이 되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맞춤법이 잘못된 텔레비전 자막이 나오면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번 과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였지? 그렇다면 얼마 전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텔레비전 자막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을 발표해야겠어. ㉠ 먼저 텔레비전 자막의 개념과 기능을 밝히며 시작해야겠어.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자막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다는 점을 드러내야겠어. ㉡ 이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면 청중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해야겠어. 마지막에는 ㉣ 청중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해야겠어. 참, ㉤ 발표 중에는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다음에 나타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5분 동안 틀린 자막이 세 개나 나오는 방송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발표자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
- 학생 2: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기관이 어디일까?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 학생 3: 동작은 상황에 어울리는데, 억양의 변화가 없어 좀 지루해.
- 학생 4: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막이 늘어나는 것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만의 잘못일까? 가장 큰 잘못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있잖아.
- 학생 5: 발표자가 △△△와 친한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이 발표를 듣고 있는데 반말은 좀 심했어.

- ① 학생 1: 발표자의 발표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② 학생 2: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들었다.
 ③ 학생 3: 발표자가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④ 학생 4: 발표자의 주장을 들으며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⑤ 학생 5: 발표자가 공격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는 ‘전통 복식 문화 전시회’를 소개한 학교 신문의 기사 문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이 이 전시회에 다녀와 쓴 감상문이다.

(가)

우리 선조의 생활상을 엿보다

— ‘전통 복식 문화 전시회’ 열려 —

지난 ○월 ○일부터 △△문화원에서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의 주최로 ‘전통 복식 문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은 그동안 수집해 온 총 500여 점의 전통 복식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 앞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전시관은 세 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관에는 왕족, 양반, 평민이 입었던 옷과 장신구가 전시되고 있다. 행사 관계자인 김○○ 씨(45세)는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 전시물이 많고, 전시물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해설사도 있으니 많이 방문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전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 이○○ 기자 —

(나)

며칠 전 학교 신문의 기사에서 본 ‘전통 복식 문화 전시회’에 가기로 했다. 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꾸는 나로서는 우리의 전통 복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해설사의 해설 시간에 맞추어 전시회장에 도착했다. 제1 전시관에는 왕족의 옷과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었다. 금실로 정교하게 용을 수놓은 용포를 보니 그 화려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보였다. “왕이 용포를 입은 것은 화려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설사의 말을 들으니 이 옷을 입었던 왕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다음에 간 제2 전시관에는 양반의 복식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내 눈을 끈 것은 선비들의 외출복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매우 수수하였다. 선비들은 복식에도 고결한 정신을 담으려 했다는 해설사의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마지막으로 간 제3 전시관에는 계절별로 평민들이 입던 의복이 전시되어 있었다. 평민들의 의복은 왕이나 양반의 옷에 비해 활동성을 중시한 것 같았다.

① 관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각 전시관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했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더 엄격한 글쓰기 관습을 따랐다.
- ③ (가)와 (나) 모두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글을 썼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독자를 고려한 표현 방법이 쓰였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7. <보기>는 (나)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된 것은?

— < 보 기 > —

- ㄱ. 해설사의 말을 인용하며 소감을 밝히자.
- ㄴ. 전통 의복을 입는 체험을 하고 소감을 밝히자.
- ㄷ. 전시관을 관람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자.
- ㄹ.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을 비교한 내용을 서술하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 (나)의 ㉠을 <조건>에 맞게 다시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조 건 > —

- 전시관에서 본 전시물을 언급하며 전시회 관람이 ‘나’에게 준 의미를 밝힐 것.
-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사용할 것.

- ① 명품 옷이란 무엇일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옷이 진정한 명품 옷임을 알게 된 전시회였다.
- ② 왕의 옷, 양반의 옷, 평민의 옷. 이번 전시회의 옷들을 보며 각 직업에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③ 늘 무거운 용포를 입고 살았던 왕들. 전시회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았다.
- ④ 수수하지만 고결한 정신을 담고 있는 난초 같은 선비의 옷. 앞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알려 준 전시회였다.
- ⑤ 일상생활에서도 들꽃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우리 선조들. 선조들의 미의식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결심을 하며 전시회장을 나왔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홈페이지에 게시판 이용을 안내하는 글을 썼다.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청소년 토론장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 검색 안내

게시판에 토론 주제를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 위에 있는 검색 기능을 먼저 이용해 주십시오. 기존과 동일한 주제로 ① 작성되어진 글은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안내

‘추천’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점수가 올라가며, 추천이 많은 글은 게시판의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글 제목의 글자색이 ㉠틀리게 표시될 것입니다. ‘비추천’이 많은 글은 게시판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15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능은 글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토론장을 건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소개

게시판을 이용할 때 상업적 목적을 지닌 광고성 글을 보신다면 ㉣회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버튼은 글의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9. 위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게시판 이용의 편의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별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③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게시판 이용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⑤ 게시판을 이용한 소감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10.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작성되진’으로 고친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다르게’로 바꾼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 하위 내용을 고려하여 ‘신고 안내’로 수정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회원으로서’로 고친다.

11.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보 기 >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붙이다’는 왜 [부티다]가 아니라 [부치다]로 소리 날까?
- ② ‘집안일’은 왜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날까?
- ③ ‘권력’은 왜 [권력]이 아니라 [겔력]으로 소리 날까?
- ④ ‘먹는다’는 왜 [멍는다]로 소리 날까?
- ⑤ ‘굳이’는 왜 [구지]로 소리 날까?

12.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맞다¹ [만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과연 그 답이 맞는지는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2」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에/에게】 ㉡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맞다² [만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을】 ㉢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

「2」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을】 ㉣ 그 신문은 창간 일곱 돌을 맞았다.

- ① 맞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② 맞다²의 「1」의 용례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맞다¹과 맞다²는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군.
- ④ 맞다¹의 「2」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군.
- ⑤ 맞다¹과 맞다²는 활용을 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 13 <보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ㄱ~ㄴ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ㄴ. ‘-았었/였었-’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ㄷ.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
 ㄹ.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① ㄱ: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
 ② ㄴ: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③ ㄷ: 지난여름에는 정말 덥더라.
 ④ ㄹ: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
 ⑤ ㅁ: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

- 14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머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택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할머니 택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임 표현이다.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 15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긴 부정문입니까? ⇨ 아니요 ㉡

⇩예

㉢

| | ㉠ | ㉡ | ㉢ |
|---|-------------|-------------|-------------|
| ① | 동생이 자지 못한다. | 동생이 못 잔다. | 동생이 안 잔다. |
| ② | 동생이 못 잔다. | 동생이 안 잔다. | 동생이 자지 않는다. |
| ③ | 동생이 안 잔다. | 동생이 자지 않는다. | 동생이 못 잔다. |
| ④ | 동생이 자지 못한다. | 동생이 못 잔다. | 동생이 자지 않는다. |
| ⑤ | 동생이 못 잔다. | 동생이 안 잔다. | 동생이 자지 못한다. |

[16~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미술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현실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사실적인 미술의 시작을 15세기 르네상스로 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려면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캔버스에 변환해야 하는데, 그 변환 기법이 '선 원근법'이다. 15세기 이전의 화가들도 원근법을 사용했지만, 이때의 원근법은 기하학에 바탕을 둔 선 원근법이 아니라 경험적 원근법이었다. 그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반면 15세기의 선 원근법은 기하학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비례를 계산해서 그리는 기법이다. 화가들은 선 원근법을 사용하여 비로소 현실의 공간을 정확한 비례에 따라 화폭에 재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 원근법을 익혔다. 우선 화가와 대상 사이에 격자무늬가 그려진 투명한 창인 그리드를 세우고, 화가의 눈 앞에는 구멍이 뚫린 기구인 파인더를 놓는다. 화가는 파인더의 구멍을 통해 그리드 너머로 보이는 대상을 책상 위의 모눈종이에 옮겨 그린다. 화가는 그림이 다 끝날 때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움직이면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져 선 원근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드는 정확한 상을 얻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다. 화가들은 이런 연습을 장기간 한 후에야 그리드를 세우지 않고 대상을 선 원근법에 따라 그릴 수 있었다.

선 원근법에 따라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물의 형태나 색채가 흐릿해지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이것은 대기 중의 공기 즉, 수분과 먼지가 빛을 난반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화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세밀한 붓질로 물체의 윤곽을 문질러 흐릿하게 처리하였는데 이것을 '공기 원근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가까운 것은 진하고 선명하게, 먼 것은 흐리고 얇게 표현하여 공간의 사실감을 한층 높여 주었다.

① 당시의 화가들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선 원근법, 공기 원근법 외에도 해부학, 명암법 등을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서 배워야 했다. 그런데 화가들의 이러한 고된 상황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출현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의 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밖의 풍경이 구멍을 통해 들어와 맞은편 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장치이다. 화가들은 그 막에 종이를 대고 맺힌 상을 베끼기만 하면 밖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 이 장치는 초기에는 너무 커서 이용에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작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 많은 화가들이 이용했다. 당시의 그림 중에는 놀랄 만큼 정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가의 실력이 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카메라 옵스큐라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16.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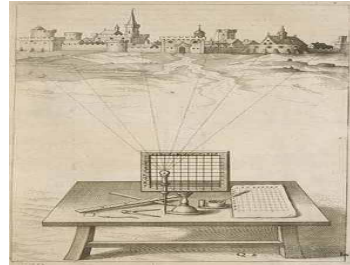
- ① 르네상스 미술을 바라보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르네상스 미술과 관련된 기법과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르네상스 미술이 종교에 끼친 과급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 ⑤ 르네상스 미술의 기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17.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이전에도 화가들은 원근감을 고려하였다.
- ② 선 원근법은 르네상스 문화를 토대로 태동되었다.
- ③ 카메라 옵스큐라는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유용했다.
- ④ 경험적 원근법은 선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의 성과로 완성되었다.
- ⑤ 공기 원근법을 사용한 화가들은 멀리 있는 사물의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18.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그림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리드는 르네상스 시기 어느 화가가 풍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① 그리드는 기하학적 방법을 회화에 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겠군.
- ② 그리드를 이용하여 먼 곳의 풍경을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군.
- ③ 그리드를 사용하여 3차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려 했겠군.
- ④ 그리드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상을 얻기 위해 그것을 감수했겠군.
- ⑤ 그리드의 사용 외에도 공기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을 사용하면 풍경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겠군.

19. <보기>의 '고갱'이 ㉠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9세기 화가 고갱은 미술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정도라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화가의 순수한 감정과 정신을 그려 나갔다.

- ①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드러나야 사실적인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내면의 불안이나 공포에 주목해야 현실을 화면에 똑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 ③ 대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④ 자연보다는 인간의 문명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를 드러내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 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20 ~ 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름 10 μ m 이하인 미세 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대기 중 미세 먼지의 농도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세 먼지 측정기가 개발되었는데, 이 기기들은 대부분 베타선 흡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베타선 흡수법을 이용한 미세 먼지 측정기는 입자의 성분에 상관없이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미세 먼지의 농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한다. 이 기기는 크게 분립 장치, 여과지, 베타선 광원 및 감지기, 연산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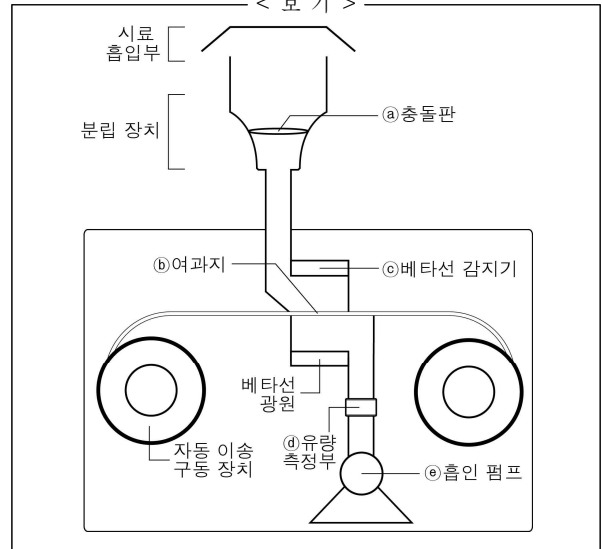
미세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에 쓰일 재료인 시료의 채취가 필요하다. 시료인 공기는 흡인 펌프에 의해 시료 흡입부로 들어오는데, ㉠ 이때 일정한 양의 공기가 일정한 시간 동안 유입되도록 설정된다. 분립 장치는 시료 흡입부를 통해 유입된 공기 속 입자 물질을 내부 노즐을 통해 가속한 후, 충돌판에 충돌시켜 10 μ m보다 큰 입자만 포집하고 그보다 작은 것들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지름 10 μ m보다 큰 먼지는 충돌판에 그대로 남고, 이보다 크기가 작은 미세 먼지만 아래로 떨어져 여과지에 쌓인다. 여과지는 긴 테이프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 미세 먼지를 포집한다. 여과지에 포집된 미세 먼지는 베타선 광원과 베타선 감지기에 의해 그 질량이 측정된 후 자동 이송 구동 장치에 의해 밖으로 배출된다.

방사선인 베타선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베타선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물질의 질량이 커질수록 베타선의 세기가 감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는 빠르게 투과하나 얇은 금속판이나 플라스틱은 투과할 수 없어,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베타선 광원으로부터 조사(照射)된 베타선은 여과지 위에 포집된 미세 먼지를 통과하여 베타선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감지된 베타선의 세기는 미세 먼지가 없는 여과지를 통과한 베타선의 세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타선이 여과지 위에 포집된 미세 먼지를 통과할 때, 그 일부가 미세 먼지 입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 먼지가 없는 여과지를 통과한 베타선의 세기와 미세 먼지가 있는 여과지를 통과한 베타선의 세기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베타선 감지기는 이 두 가지 베타선의 세기를 데이터 신호로 바꾸어 연산 장치에 보낸다. 연산 장치는 이러한 데이터 신호를 수치로 환산한 후 미세 먼지가 흡수한 베타선의 양을 고려하여 여과지에 포집된 미세 먼지의 질량을 구한다. 이렇게 얻어진 미세 먼지의 질량은 유량 측정부를 통해 측정된, 시료 포집 시 흡입된 공기량을 감안하여 ppb단위를 갖는 대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로 나타나게 된다.

21. ‘베타선 흡수법을 이용한 미세 먼지 측정기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에 의해 들어온 공기가 부딪히면서 먼지 입자가 분리된다.
- ② ㉡에는 ㉠를 거쳐 온 지름 10 μ m 이하의 먼지 입자가 쌓인다.
- ③ ㉣에서 측정되는 베타선의 세기는 ㉡에 포집된 미세 먼지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 ④ ㉣에서 측정된 베타선 세기와 ㉤에서 측정된 흡입 공기량을 활용해 미세 먼지 농도를 알아낸다.
- ⑤ ㉤과 ㉣ 사이의 공간에는 질량 측정이 끝난 여과지에 포집된 미세 먼지가 축적된다.

20.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세 먼지 측정기는 미세 먼지 농도 측정 시 미세 먼지의 성분에 영향을 받는다.
- ② 베타선 감지기는 베타선 세기를 데이터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치였다.
- ③ 대기 중 미세 먼지의 농도 측정은 시료의 채취부터 시작하겠군.
- ④ 베타선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체를 투과하지 못하겠군.
- ⑤ 미세 먼지 측정기에는 베타선 흡수법이 널리 사용되겠군.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세 먼지의 질량을 농도로 나타낼 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② 미세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 ③ 미세 먼지를 투과하는 베타선의 세기를 유지하기 위해
- ④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 ⑤ 미세 먼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포집하기 위해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단 논법이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 즉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리 방식을 말한다.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거짓인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추론 형식을 타당하다고 한다. 논리학에 있어 타당성은 추론 절차의 올바름을 뜻하며, 이는 명제의 참·거짓과는 관계가 없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삼단 논법을 이루는 세 명제들의 성질과 관계를 분석하여 타당한 추리의 형식을 체계화하였다.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주연(周延)이다. 주연은 명제에서 주어 개념이나 술어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느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주연되었다’고 하고 그 대상의 일부만만 지칭하도록 사용되었을 때 ‘부주연되었다’고 한다. 다음 삼단 논법의 예를 보자.

대전제: 모든 남학생들은 축구팬이다.

소전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학생들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축구팬이다.

삼단 논법의 세 명제는 세 개념의 관계를 나타낸다. 위 삼단 논법에는 ‘남학생들’, ‘축구팬’, ‘이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세 개념이 등장한다. 이 중 결론의 주어 개념인 ‘이 학교의 학생들’을 소개념이라 하고, 소개념이 들어 있는 전제를 소전제라고 한다. 그리고 결론의 술어 개념인 ‘축구팬’을 대개념이라 하고, 대개념이 들어 있는 전제를 대전제라고 한다. 또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소개념과 대개념의 매개 역할을 하는 ‘남학생들’을 매개념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을 지칭하므로 주연되었다. 그런데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의 학생들’인 남학생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따라서 위 삼단 논법에서 매개념인 ‘남학생들’은 대전제에서 주연되고 소전제에서 부주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연과 관련하여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법칙은 ㉠ ‘타당한 삼단 논법에서는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도 각각에서 부주연되었을 때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두 전제에서 각각 대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라고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대전제: 어떤 남학생들은 축구팬이다.

소전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학생들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축구팬이다.

위 삼단 논법에서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개념은 ‘남학생들’이다. 그런데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어떤 남학생들’이므로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소전제의 ‘남학생들’ 역시 ‘이 학교의 학생들’인 남학생만을 의미하므로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있다. 즉,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다 부주연되었다. 따라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축구팬이다.’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23.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삼단 논법에서 대개념은 대전제와 결론에 등장한다.
- ② 삼단 논법은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리 방식이다.
- ③ 삼단 논법에서 결론은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삼단 논법에서 추론 형식의 타당성은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 ⑤ 삼단 논법에서 ‘주연’과 ‘부주연’은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용어이다.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면, 매개념이 소전제와 결론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결론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지칭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대전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사업가다.

소전제: 모든 철학자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철학자는 사업가다.

- ① ‘철학자’는 결론의 주어 개념이므로 소개념이다.
- ② ‘합리적인 사람’은 두 전제에 모두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매개념이다.
- ③ 소전제의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의 일부만을 지칭하므로 부주연되었다.
- ④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었으므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 ⑤ 결론을 ‘어느 철학자도 사업가가 아니다.’로 바꾸면 추론이 타당하게 된다.

[26~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리적 측면에서 음(音)은 음압과 주파수를 가진다. 특히 음압은 음을 단위 면적당 압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의 크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음량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음의 크기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소리가 작게 들린다거나 크게 들린다고 할 때, 이는 음량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음량, 즉 인간이 지각하는 음의 크기는 음압과 주파수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음원에서 서로 다른 크기로 소리가 들린다면 사람들은 보통 더 크게 들리는 음원의 음압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이 소리를 들을 때 달팽이관의 섬모 세포가 반응하는데, 이 반응이 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인식한다. 그런데 이 섬모 세포는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주파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주파수에는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음압뿐만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서도 음의 크기를 달리 느낄 수 있다.

인간의 귀는 주파수에 대하여 불규칙한 반응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000 ~ 5,000 Hz의 음에 대해서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 이하와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략 16 Hz 이하의 음과 20,000 Hz 이상의 음에 대해서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청각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등청감곡선이다.

등청감곡선은 어떤 음들이 같은 음압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파수에 따라서 음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음향학적으로 말하면 1,000 Hz의 순음*과 같은 크기로 느껴지는 주파수별 음압의 크기를 그린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곡선에 따르면 1,000 Hz인 순음의 음압이 30 dB일 때 느껴지는 음의 크기는 125 Hz인 순음의 음압이 40 dB일 때, 4,000 Hz인 순음의 음압이 25 dB일 때의 음의 크기와 같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위의 세 순음의 음압이 모두 30 dB의 크기로 나온다면 4,000 Hz의 순음이 가장 크게 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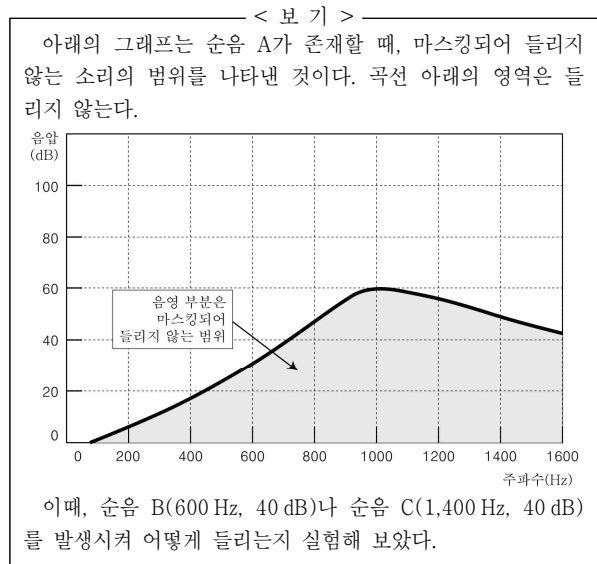
이러한 청각 특성 때문에 어떤 음을 듣고 있을 때, 다른 음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주위에 소음이 많으면 대화 상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어떤 음(대화 상대의 목소리)이 다른 음(주위의 소음)에게 마스킹되었다고 한다. 마스킹의 가장 단순한 예로는 순음 A가 존재할 때 어느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순음 B를 들을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스킹되어 들리지 않는 소리의 범위는 두 음의 음압과 주파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마스킹하는 음의 음압을 높이면 마스킹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두 음이 서로 근접한 주파수의 순음일수록 마스킹이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 순음: 단일 주파수를 가진 음.

26.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압은 음의 물리적인 크기로서 음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 ② 섬모 세포 반응의 민감도는 주파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③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대략 16 ~ 20,000 Hz라고 볼 수 있다.
- ④ 자동차 소음에 대화 상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마스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음압은 30 dB로 같고 주파수는 각각 1,000 Hz, 125 Hz인 두 순음이 있다면 125 Hz의 순음이 더 크게 들린다.

2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를 예상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음압이 작을수록 B나 C를 마스킹하기 쉽겠군.
- ② A와 B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면 B는 A에 가려 전혀 들리지 않겠군.
- ③ A와 C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면 C의 음압이 낮아져 A는 C를 마스킹하지 못하겠군.
- ④ A보다 C를 먼저 발생시킨 후 실험한다면 C는 처음에는 들리다가 A를 발생시킨 후에는 들리지 않겠군.
- ⑤ 200 Hz, 20 dB인 순음 D를 추가로 발생시켜 A와 D만 존재한다면 음압 차이로 D가 들리지 않겠군.

[28~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지만, 항상 이익을 낼 수는 없으며 이익에 대한 기대에는 언제나 손해에 따른 위험이 동반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과 시장 상황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종업원의 파업, 경영 실패, 판매의 부진 등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특수 사정으로 인한 위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로, 여러 주식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즉 어느 회사의 판매 부진에 의한 투자 위험은 다른 회사의 판매 신장으로 인한 투자 수익으로 상쇄할 수가 있으므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종목이나 분야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종목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그 종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체계적 위험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예를 들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정치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기인한다. 체계적 위험은 주식 시장 전반에 관한 위험이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에 대응하는 분산투자의 방법으로도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분산 불능 위험'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 '베타 계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해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베타 계수란 주식 시장 전체의 수익률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개별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계수로,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 변할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몇 %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베타 계수는 주식 시장 전체의 변동에 대한 개별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 증가(또는 감소)할 때 어떤 주식 A의 수익률이 0.5% 증가(또는 감소)한다면, 주식 A의 베타 계수는 0.5가 된다. 이때, 주식 B의 수익률은 2% 증가(또는 감소)한다면 주식 B의 베타 계수는 2가 된다. 그러므로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식 B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 시장이 호황에 진입할 경우 베타 계수가 큰 종목의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반면, 불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베타 계수가 작은 종목의 투자 비율을 높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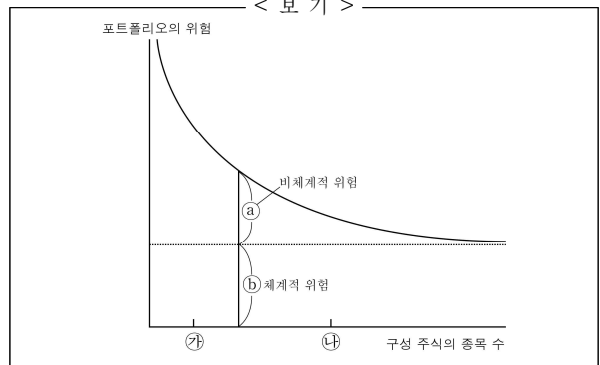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집합.

28. 밑줄의 표제와 부제를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의 사례 분석
 - 분산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 ② 비체계적 위험을 활용한 경기 변동의 예측 방법
 - 분산투자와 베타 계수의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 ③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투자 전략
 - 분산투자와 베타 계수의 활용을 중심으로
- ④ 종합주가지수 변동에 민감한 비체계적 위험의 중요성
 - 분산투자와 기업의 특수 상황을 중심으로
- ⑤ 주식 시장이 호황에 진입할 경우 바람직한 투자 방향
 - 분산투자를 통한 베타 계수의 오류 감증을 중심으로

29. 밑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상관관계가 없는 주식의 종목 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다.
- ② b는 분산투자로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다.
- ③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의 총 위험은 a와 b의 합이다.
- ④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a는 예측 가능하지만 b는 예측 불가능하다.
- ⑤ b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는 ㉠의 경우보다 기업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3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느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베타 계수를 가지는 (a), (b), (c) 세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 | (a) | (b) | (c) |
|-------|-----|-----|-----|
| 베타 계수 | 0.9 | 1 | 2.2 |

- ①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0% 증가할 때 (a)의 수익률은 9% 증가할 것이다.
- ② 주식 시장이 호황에서 불황으로 변화한다면 투자자는 (a)의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③ 특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0%라고 가정하면 (b)의 수익률은 0%일 것이다.
- ④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2% 감소할 때, (c)의 수익률은 4.4% 감소할 것이다.
- ⑤ 주식 시장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변화할 때 (b)의 수익률은 (c)의 수익률보다 클 것이다.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땀땀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이 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장면들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그럼 시를 꼼꼼히 읽고 아래 장면들에서 각자 파악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 [장면 1] | [장면 2] | [장면 3] |
|--------|----------------|--------|
| 진주 장터 | 진주 장터 오가는 길 | 골방 |

- ① [장면 1]은 생계를 위해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② [장면 1]은 팔리지 않은 고기를 통해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③ [장면 2]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④ [장면 2]는 오누이가 진주 남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⑤ [장면 3]은 장사하러 간 어머니를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오누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달빛을 보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의지를 연상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웅기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하며 어머니의 한을 떠올리고 있다.
- ③ 화자는 웅기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웅기전의 웅기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어머니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어 있다.
- ⑤ 화자는 달빛 받은 웅기들을 보며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웅기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스런 삶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34 ~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나기배 씨는 치열한 경쟁 끝에 기업의 이사로 승진한다. 어느 봄날, 나기배 씨는 마당의 정원을 가꾸다 누군가 숨겨 놓은 녹슨 깡통을 발견한다.

깡통을 기울이자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쏟아진 것은 수백 개의 유리구슬이었던 것이다.

설사 핵탄두를 파냈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구슬을 한 주먹 집어 들고 무슨 진기한 보석이라도 감정하듯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유리구슬이었고, 그것도 속에 바람개비 모형의 색뭉치가 들어 있는 놀이용 색 구슬들이었다.

“아, 이거야말로 보물단지처럼 캐낸 거로군…….”

[A] 나기배 씨는 비로소 미소를 머금었다. 보배…… 그는 기억해 냈다. 우리는 이것을 보배라고 했지. 보통 구슬 열 개 맞잡이로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다. 그는 다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웬지 가슴의 울림이 깊이 남았다.

아이들 방을 향해 그는 소리쳤다.

“애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니?”

텔레비전 탓이다. 아이들이 알아듣기까지는 네댓 차례나 목청을 돋우어야만 하였다. 텔레비전의 볼륨이 낮아지더니 큰 녀석이 얼굴만 내밀었다.

“나 볼렸어, 아빠?”

“이리 좀 나와 보렴.”

“왜요?”

“와서 보면 안다…….”

“뭔데 그래요? 우리 텔레비 보구 있는데…….”

녀석은 선뜻 나오려 들지 않는다. 만화나 타잔영화라도 방영 중인 모양이다. 그놈의 텔레비전……, 나기배 씨는 속으로 투덜댔다. 백 프로 황당무계한 스토리에다가 엉뚱한 연애심리 같은 걸 비벼 넣어 아이들의 순결한 녀를 홀리는…….

……(중략)……

끝끝 허를 차며 나기배 씨는 또 생각하였다. 우리들의 손은 어땀했던가? 누구 한 사람 예의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매사에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였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깐 그래…….”

나기배 씨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는 되풀이하여 시범을 보이고 난 후 아이들을 따라 하게 하였다. 그러자 녀석들은 차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큰 녀석이 먼저 손을 털고 냉큼 물러서 버렸다.

“시시껄렁해!”

조금은 열적은 표정인 채로 녀석은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재미도 없이 손만 더러워졌잖아!”

그러자 둘째도 형을 뒤따랐다.

“그래, 아주 시시껄렁해. 지저분하게 놀았다고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바…….”

나기배 씨는 웬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껏 집념을 가지고 땀 흘려 쌓아 올렸던 무언가를 녀석들이 일고의 미련도 없이 허물어 버리고 마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은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그는 큰 녀석의 이마를 쥐어박았다.

“뭐야? 시시껄렁하다구?”

고함치듯 그는 말했다.

“네 녀석들이 멍청하니깐 그렇지 이게 왜 시시껄렁해? 뭐, 지저분하다구? 야 임마, 이 흙이 어째서 지저분하단 말이나? 어째서 불결해? 병이 든 건 차라리 네놈들의 고 하얀 손이다 이놈들아…….”

울긋 넘어오는 열기를 토해 내다 말고 나기배 씨는 멍해졌다. 이 무슨 맹랑한 것인가. 그는 풀썩 웃고 말았다. 느닷없이 머리통을 쥐어박혀 잔뜩 부어터진 뺨뺨을 하고 있던 큰 녀석이 호되게 쏘아붙였다.

“아빠 괜히 신경질이야. 재미있을 아빠 혼자서나 해!”

그러자 머쓱해 있던 둘째도 금세 기를 뒀다. 녀석은 호주머니 속에 숨어 담았던 구슬들을 한 줍씩 꺼내 뽕개쳤다.

“그래 아빠 혼자서나 해. 형, 우리 텔레비 보자.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버렸다. 모든 것—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흙과, 거기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 말이다…….

④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더 이상 삼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어찌, 흙을 파 뒤집는 일만이겠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매달려 씨름해 왔던 온갖 일들은 물론, 앞으로 새로이 부딪치게 될 작업들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참 맹랑한 노릇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불혹의 생애가 너무나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꺾은 채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아무도 미련 두지 않는 색 구슬들이 파헤친 흙더미 위 여기저기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비스듬히 기운 햇빛을 받아 그것들은 잘디잔 별뿔기처럼 곱게 빛나고 있었다. ① 다시 땅속 깊이 은닉해 둘 필요는 없으리라. 그것들은 이제 트랙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며 잠깐씩 보는 이의 향수 같은 것을 희미하게 자극하다가 끝내는 발길에 채여 시궁창이나 쓰레기더미 같은 데로 영영 모습을 감추리라.

—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태도로 사건을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한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진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5. ‘색 구슬’에 대해 ①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래부터 가치가 없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② 앞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 ③ 이제야 그 가치를 드러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 ④ 과거에 지녔던 가치가 이제는 외면받기 때문에
- ⑤ 예전의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6. [A]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고 할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23. 가정집의 정원

깜짝 놀라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나기배 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주먹 가득 색 구슬들을 집어 들어 꼼꼼히 들여다본다. 색 구슬들이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인다. (C.U.)

나기배 씨 : (혼잣말로) 내가 방금 보물단지를 켜군.

나기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큰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O.L.)

S#24. 마을의 공터

소년(나기배 씨)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은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소년의 친구가 부러운 표정으로 소년을 쳐다본다.

소년의 친구 : (간절하게) 기배야, 내가 가진 색 구슬 하나만 내 구슬 다섯 개랑 바꾸자, 응?

소년(나기배 씨) : 싫어, 이건 나한테 보배란 말이야. 내가 가진 보통 구슬 열 개를 줘도 안 바꿀 거야.

S#25. 가정집의 정원

나기배 씨 : (색 구슬을 보며 미소 짓다 혼잣말로) 녀석들에게 색 구슬이 뭔지 알려 줘야겠어. 그런데 이 녀석들 뭐하고 있지? (방 쪽을 바라보며) 어휴, 또 텔레비전에 빠져 있겠군.

S#26. 어두컴컴한 방안

방 밖에서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두 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잠시 후, 큰 아들이 일어나 텔레비전의 볼륨을 줄이더니 방 밖으로 얼굴만 내민다.

- ① S#23에서 확대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핵심 소재인 색 구슬을 강조해야겠어.
- ② S#24의 회상 장면을 통해 나기배 씨에게 색 구슬이 주는 의미를 드러내야겠어.
- ③ S#24의 소년의 친구와 S#26의 두 아이가 동일한 표정을 짓게 하여 절박한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드러내야겠어.
- ④ S#25의 나기배 씨의 대사를 통해 S#26의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이유를 드러내야겠어.
- ⑤ S#25에서 나기배 씨가 짐작한 상황을 S#26에 구현하여 장면을 연결해야겠어.

37.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밝고 따뜻한 날」은 세대 단절로 인해 상처 받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텔레비전’과 ‘구슬 놀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기배 씨는 자신이 살아 온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과의 소통에 실패한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텔레비전에 대한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반응의 차이에서 세대 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에서 세대 단절의 극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 ④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 혼자만 남겨진 나기배 씨의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를 엿볼 수 있군.
- ⑤ 나기배 씨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서 세대 단절로 인해 기성세대가 받는 상처를 엿볼 수 있군.

38.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담상조(肝膽相照)
- ② 망연자실(茫然自失)
- ③ 전전긍긍(戰戰兢兢)
- ④ 절치부심(切齒腐心)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39~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울버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가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울버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 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답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벼를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술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려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월려나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위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한아한: 춥고 굶주린.

* 싸리피 바랑이: 둘 모두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시경』의 한 구절로, '진필에 난 장초나무 가지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자라남'을 뜻함.

* 궁귀: 가난 귀신.

* 추추분분: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 공혁: 울러대어 꾸짖음.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41.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지만 하네

- 김효일, 「만홍」 -

-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군.
-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2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 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딸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간다. 매화는 조 병사에게 구원되고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양유의 계모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낸다.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관상쟁이가 이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찌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士夫) 후계요, 매화는 유리결식(流離乞食)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 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이까?”

병사 오히려 여겨 가로되,

“부인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하고 나아가거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병사께서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매화 너의 짝이 될지라. 저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두리요.”

한대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

이때에 병사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장단골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길가에 앉았거늘 병사 말을 머무르고 물어 가로되,

“이곳이 연화동이냐?”

“연화동이로소이다.”

병사 물어 가로되,

“연화동이라면 김 주부라 하는 양반 있느냐?”

그 사람이 웃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이 있더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이 말을 들으매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 할 줄을 모르다가 다시 생각하여 가로되,

“날이 저물은지라 유하고 갈 터이니 주점을 이르라.”

한대 그 사람이 한 집을 인도하거늘 병사 들어가니 또 한 사람이 물어 가로되,

“말 타고 온 손님은 어떠한 양반인고?”

주모가 가로되,

“저러한 양반이 김 주부 같은 놈을 찾아 왔다.”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은 이미 도망하였거니와 저희 딸 매화 비록 천인(賤人)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 아무 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이리라.”

하거늘 병사 주모더러 물어 가로되,

“이 곳에 김 주부라 하는 재인이 있느냐?”

주모가 가로되,

“수년 전에 어디론가 도망하였삽더니 듣사오니 제 딸 매화는 남복을 입고 황해도 연안 지경에 있던 말을 들었나이다.”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답하여 가로되,

“만일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사를 하였던들 사대부 집안에 대단 비웃음을 살 뻔하였도다. 매화는 천인 자식

이라 내쫓으라.”

한대 부인이 가로되,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 아니 하면 무슨 허물 있으리이까?”

병사 또 학당에 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하시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잊어지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 병사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간다. 김 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와 방에 가두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한다.

“동자는 불쌍한 사람을 살려 주소서.”

한대 동자 가로되,

“원명* 그뿐이라 낸들 어찌하리요. 만일 여자 혼신(魂神) 들 어와 절하거든 맞절하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문을 잠그고 나가거늘 양유 측하에 앉았으니 정신 산란한지라. 창천에 월색은 명량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하고 바람만 수수하여도 귀신인가 의심할 제 이팔청춘 어린이 이 일천간장 다 녹인다. 이윽하여 밖으로 공성이 들리거늘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어머님, 어머님, 못 가겠소.”

부인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바빠 들어가자.”

매화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소.”

문고리 떨렁 방문이 와당탕, 양유 깜짝 놀래어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남자 녹의홍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득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나, 호랑이나,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과연 남자 일어나 사배(四拜)하거늘 양유 내념(內念)에 행여 살려 줄까 일어나 극진히 절하고 거동을 살펴보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이 열치며 한 ㉠ 불서가 내려지거늘 그 글 보니 하였으니, ‘만산초목이 다 피었으니 양유·매화는 봄소식을 모르는도다.’ 하였거늘 양유 그 글을 보고 여자를 살펴보니,

“연연한 거동은 매화와 방불하다마는 이러한 산중에 어찌 매화가 왔으리요”

남자도 추파*를 번듯 들어 수재*를 살펴봄에 가로되,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

하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매우 기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가 분명하거늘 양유가 가로되,

“네가 죽은 혼이나. 명천이 감동하사 매화 얼굴 다시 보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요.”

하고 기절하거늘 매화는 흥중이 막히어 아무 말도 못 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 작자 미상, 「매화전」 —

* 원명 : 본디 타고난 목숨.

* 추파 : 미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

* 수재 :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4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인 소재를 통하여 대상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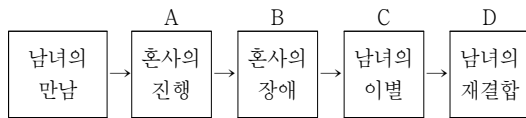
- ① 최 씨 부인의 동생은 조 병사보다 앞서 장단골에 갔다.
- ② 매화 모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 ③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 ④ 주모는 조 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 ⑤ 조 병사의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다.

44. <보기>를 활용해 밑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전소설에서 혼사 장애담은 남녀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되지만 다시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혼사 장애담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 ① 조 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 씨 부인과 상의했군.
- ② 최 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간계를 부리는 데서 B가 비롯되었군.
- ③ 조 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C를 명령했군.
- ④ 매화는 C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 ⑤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D를 확인했겠군.

45.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매개가 된다.
- ② 인물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인물들이 잘못된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 ④ 인물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 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